주 일 예 배

오전 11시 —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거룩하신 하나님(Give Thanks)	다 같 이
조용한기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44	다 같 이
기 도	Prayer	맡 은 이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마태복음 7:21-23	인 도 자
설 교	몰라서가 아니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진우 목사
찬양과봉헌	Hymn 217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 주 기도 :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예정)**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 진 우 목사 Jin W. Lee**
행정사역	
양육사역	
찬양사역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약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우리 자신이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6년 8월 20일 제3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우리가 흔히 쓰는 '구원'이라는 낱말은 실상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눅1:18)이라고 할 때 속박된 데서 풀려나 해방되고, 감금된 데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값을 치르고 속박된 데서 벗어나게 한다는 구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딛2:14). 나아가,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건지는 것(눅1:71)이 구원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이라는 뜻으로도 쓰고 있습니다(눅19:9).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구원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듯이 보이는 일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반열에는 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을 받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가리키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를 즐겨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인생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알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사람의 불순종과 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이익과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인간 최초의 불순종이자 인류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범한 불순종이요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사탄의 유혹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자기의 뜻과 이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마디로 우리는 너무하리 만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이고 내 생각이고 내 이익입니다. 정말 달라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능력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것이 마치 성도만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도 형통합니까? 형통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아삽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하여 넘어질 뻔 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오히려 세상에서 형통할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것은 잘 되고 막힐 것은 막히는 것이 성도가 누릴 형통의 축복입니다. 막혀야 할 때 잘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이 아닙니다. 사단의 농간입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잠언 20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지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예배와 행정 그리고 조직과 운영에 있어 전통과 형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유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도를 위해 주보를 두 가지로 준비하였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금주의 말씀을 요약하여 실었고 전도를 위해서는 복음증거에 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월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인터넷 선교를 위해 자유교회 홈페이지를 준비 중입니다. 정식 홈페이지 오픈에 앞서 미니 홈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http://cyworld.nate.com/libertycommunity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80.00	
감사헌금:	$20.00	
주일헌금:	$15.00	**합 계: $215.00**

금주의 중보기도

- 자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이민교회에 새로운 영적 파도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 이민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 하나님 테러와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새 삶으로의 초대

알라스카가 자원의 보물창고라는 얘길 들으면 들을수록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라스카의 전 주인 후손들입니다. 반면 알라스카를 산 사람의 후손들은 오늘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알라스카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1867년 720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1에이커에 2센트 줬습니다. 당시 미국 측에서 이 일을 시워드 국무장관이 진행했는데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사느냐고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시워드가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미래 가치에 투자하라>는 황성주박사의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30년 뒤 알라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20세기 들어서 석유까지 발견되면서 시워드 국무장관이 장래를 보는 혜안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는 그 가치를 잘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선명하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알라스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면 100년 안에 그 진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인 것은 이 세상에서는 제한된 사람들만 알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를 사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알라스카를 산 미국이 그 땅에 매장되어 있는 금과 석유를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산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도처에서 시워드 국무장관이 알라스카를 사야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야한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소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날이 옵니다. 그가 옳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알라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석유가 나올 날이 있듯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산 사람들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다음 세상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다음 세상을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야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사야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하니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싸구려인줄 압니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은 싼 게 아닙니다. 영생은 비쌉니다. 너무 그 값이 비싸 사람이 도무지 그 값을 치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값을 치루었으니 너는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치룰 값이 없는 겁니다. 싸구려이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샀습니까? 값없이 돈 없이 영생을 샀습니까? 잘했습니다. 혹 지금 당신이 시워드처럼 어리석다고 오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잘했음을 온 천하가 확실히 알게 될 날이 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했다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사람이 당신 덕을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하겠지만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길이 다음 세상을 천국에서 보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감자탕교회 전도지에서)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예배와 행정 그리고 조직과 운영에 있어 전통과 형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유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도를 위해 주보를 두 가지로 준비하였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금주의 말씀을 요약하여 실었고 전도를 위해서는 복음증거에 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월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인터넷 선교를 위해 자유교회 홈페이지를 준비 중입니다. 정식 홈페이지 오픈에 앞서 미니 홈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http://cyworld.nate.com/libertycommunity

금주의 중보기도

- 자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이민교회에 새로운 영적 파도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 이민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 하나님 테러와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지배하게 하옵소서.